

문화방송



성도의벗8

1973

성도의 벗

순서

1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해롤드 비 리
4	태풍	조이스 에이 오르겐
8	도박의 악	달린 에이치 오크스
13	가정에서의 순종	헨리 비 아이링
18	유시비어스가 관찰한 대배도	하이드 엠 메릴
21	심심풀이	메드린 에이치 맥오리
22	젓소	데이비드 비 하이트
24	요나	매리 엘 러스크
26	좋은 소식	델마 앤더슨
29	자유케 되려면 율법을 상고하라	하트만 렉터 이세
32	개종자	스터얼링 더블류 실
33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라	해롤드 비 리
38	단, 장막, 우물	에이 데오도르 터틀
41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44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	로버트 제이 매튜스
45	선교부장 메시지	엘 에드워드 브라운
46	내외 소식	

벗

1973년 8월호 제9권 제8호

- **대판장단**
해롤드 비 리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기
- **고문 위원회**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교내 연락 책임자
존 이 카, 번역 및 배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회 잡지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교육 자료 책임자
-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 **발행일** : 1973년 8월 1일
매월 1일 발행
● **통권** 제97호
●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전화** : 73-5331
●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대체구좌** : 서울 1409
●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정 가 : 1권 10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5불
항공7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 하기로

해럴드 비 리 대관장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과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있는 말로 밝혔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왕국에서 독실한 성직자였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1-2)

다음에 드리는 간단한 말씀으로 나는 사도 바울이 한 이 말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은사를 많이 받은 고대의 예언자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장차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놀라운 은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물몬경의 예언자인 모로나이는 니파이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설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그는 그의 말이 전달된 후 수 세기가 지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물몬서 8:35)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는 모로나이처럼 눈 앞에는 없으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사물을 보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그들이 장차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인류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신 사건보다 동서반구의 예언자들에게 더 분명히 나타내신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신분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고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바운티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설명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다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니파이삼서 11:13-14)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었으며, 전세에서는 하나님과는 달리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죽은 후 다시 부활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학자 중의 한 분인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그의 저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석서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극히 드물게 지상의 예언자나 계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때에도 그는 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을 증거하셨다.” (39 페이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아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 3:17)

우리는 주님이 각 경륜의 시대에 그의 강림을 예비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신앙개조 3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의 사명과 신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리려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 아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되풀이 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직접 주신 계시에서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떨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사 53:3)가 되며 인간의 범법으로 심

한 상처를 받게 되며 어린 양으로 기꺼이 제물로 희생된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죄인과 함께 죽은 후 부자의 묘실에 매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참조)

어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축제 때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한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말하자 그는 의미 깊은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한 것이지 불친절한 대꾸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그의 어머니는 잊지 않았으니 경전에는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2:48-51 참조)

예수가 성역을 베풀던 말년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국민을 이끌어 줄 정치 지도자를 갈구하던 유대인들에게 그의 사명은 부합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사명이란 삶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확립하며 그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계 13:8)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기 위해 오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가 되셨으며, 무덤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모두 무덤에서 깨우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요 5:29)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과 세상의 구속주가 되는 최고의 희생을 나

타내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서반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준 작별의 훈계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온 참된 의미인 구원을 각자가 간구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미대륙의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최후의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니파이삼서 27 : 19-21)

말일성도가 세상에 밝힌 신앙개조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의 구속의 희생이 지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어떠한 관계가 있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3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의 생활에 율법과 의식이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권능의 열쇠가 나오는 분명한 통로를 보여 주는 이 경륜의 영감에 찬 계시는 그의 이름을 딴 회복된 교회에서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이 모든 일에 대한 위대하고 큰 비밀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전반에 관한 지고선은 성신권의 권능을 얻음에 있나니, 이 열쇠를 얻는 자는 물론 죽은 자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인간의 자녀의 구원에 관

한 지식을 얻음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28 : 11)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전하는 모든 가르침의 근본 주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얻는 길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라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영원한 목표를 전념하여 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지난 해에 교회 군인 관계 위원회의 주선으로 미해군 군종감인 해군 소장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방문한 목적은 다른 종파에서 교육을 받아 신학적인 면에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군목들과 동등한 실력을 갖춘 말일성도의 군목이 추천을 받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 왔던 것입니다.

종교 학원과 세미나, 브리감 영 대학과 그곳에서 실시되는 ROTC 훈련 과정을 살펴 보고 헌납 직전의 프로보 신전과 선교사 봉사 및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젊은이의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의 다른 기구를 살핀 후 몇몇 총관리 역원과 기타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간단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피력했으며 그의 인상과 결론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나 다른 교회도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 귀한 손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가르침에 진정으로 반영되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전 2 : 2참조) 우리의 소망이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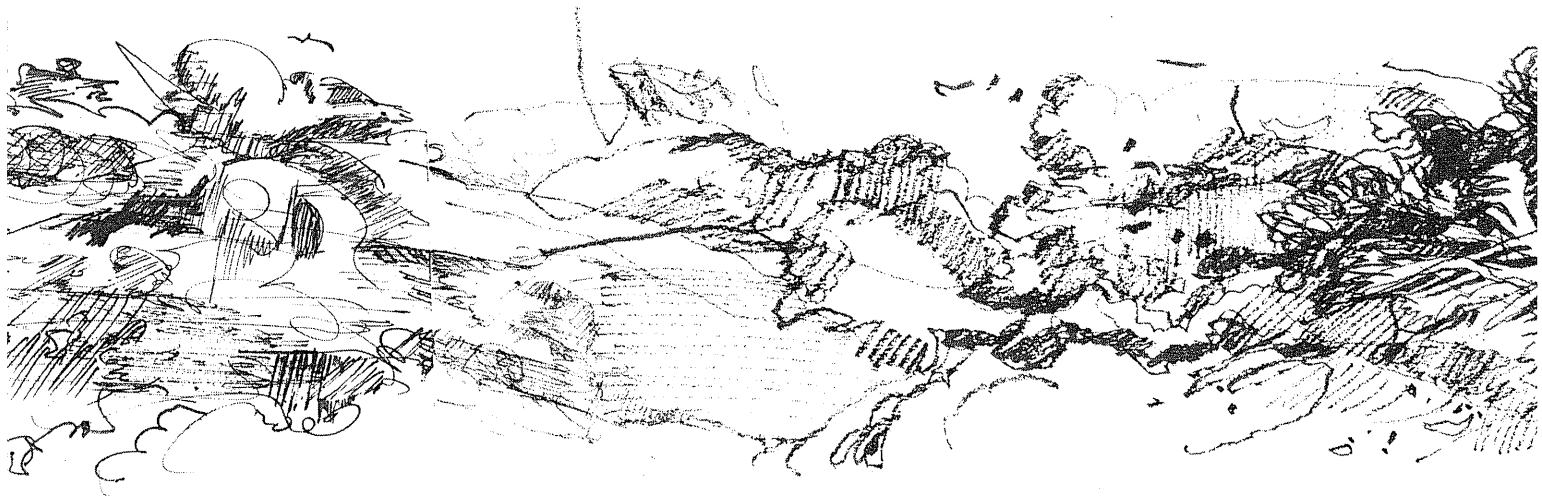
태 풍

태풍과 우박이 아리조나를 휩쓸 때 성찬식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두워진 예배당에서 평안, 안정, 우정의
정신을 찾았다.

조이스 에이 오르겐 씀

행복

1973년 8월호



1972년 9월 11일 월요일 아침 주위의 동리를 살펴 보았을 때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이룩한 일을 그토록 무섭게 파괴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전 일요일 날도 메사 웨스트 스테이크의 엘마 와드는 다른 일요일과 똑같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교회의 다른 가족들처럼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부산하게 움직였고, 그 날이 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슴을 감싸 주시는 극적인 순간을 맛보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돈은 선교 사업에 관한 성찬식 프로그램을 책임 맡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쁨에 넘쳐 있는 신혼 부부인 벤과 엘리 힐 부부에게 회원들로 하여금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동기를 불러 넣어 주길 바라면서 그들이 개종하고 침례를 받은 후 어떤 아름다운 변화를 맛보았는지 이야기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엘리는 아이가 몹시 아프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벤은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른 개종한 부부인 잭크와 쟈라이트를 생각했는데 잭크는 두 번째 연사로 말씀을 하겠다고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은 이 두 사람이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심되었습니다. 아무도 강렬하고 사랑으로 찬 손길이 성찬식 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라이트 형제와 자매는 우리와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차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슈퍼스티션 산을 마주 볼 수 있었으며 산 위에 쌓이는 아름다운 구름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오늘 밤엔 태풍이라도 볼 것 같군”하며 한 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녁에 갖게 될 영적인 모임에 대한 기대로 날씨에 관해서는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성찬의 축복과 전달이 있는 다음 라이트 형제가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복음 이야기를 해주어 결국은 선교사 복음 토론에도 귀를 기울이게 해 준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의 삶을 얼마나 뜻깊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가 이웃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가 말했듯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말씀을 마친 다음 친 형제인 톰과 데이비드 그래프 두 형제가 어린이 찬송가를 접속곡으로 불러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무도 밖이 어둠에 싸이고 예배당 주위에 세찬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힐 형제가 말씀을 하러 연단에 섰습니다. 그가 복음이 자기 생활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나를 막 이야기하는 순간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가 맹위를 떨치고 창 밖으로 번개불이 번쩍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았던 회중들은 불안해서 자리를 뜨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갑자기 지붕 위를 내려 때리는 우박 소리가 요란했으므로 벤은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난 다음 폭풍이 가신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벤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집을 나오면서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휩쓸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창 9 : 11 참조) 긴장이 가신듯 회중들로부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전보다는 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배당 안의 전등이 나가고 우리는 칠흑같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녀 노소 모두 가까운 이웃이며 형제 자매인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폭풍과 천둥의 맹위 속에서 캄캄해진 예배당을 말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우박 소리가 너무나 요란했기 때문에 옆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귀를 바짝 가져다 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놀라움에도 그러한 폭풍 속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나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평안과 만족감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밖의 폭풍우 소리에 질려서가 아니라 안에서 감도는 평안한 분위기로 인해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점점 더 침묵이 깔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예배당의 뒷 자리에서 누가 조용히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59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한 사

람씩 모두 이에 가담해서 결국 회중이 모두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닌 화평스런 분위기는 주일학교 연습 찬송 때에도 결코 갖지 못한 혼연일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우리 뒤덮고 우리 화평을 위협할 때”라는 가사가 울려 퍼질 때 내 불에서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앞에 기쁜 소망 구원 가까이 있는 줄 믿으며”라는 다음 가사를 부르기도 전에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름다운 메시지의 평온함을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의 선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모든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초기 성도들이 고난의 시대에 역경을 이겨 내며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찬송을 마치자 음악 지휘자는 다시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86장)를 선창했고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아직도 밖에서는 폭풍이 세차게 불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사랑과 우정의 아름다운 느낌이 감돌았고 물문의 전통적인 음악이 우리의 마음과 음성을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모든 것 잘 되리”라는 마지막 가사에 이르렀을 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깨달은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잘 되리. 그렇습니

다. 나는 그날 캄캄한 예배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온 환한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끝났을 때 힐 형제는 다시 일어서서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의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폭풍우의 소리가 점차 가라앉았으며 회중은 모두 젊은이가 열렬히 성령을 증거하는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인 돈이 선교사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이곳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느끼도록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가 캄캄한 예배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에 감동을 느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말의 본뜻을, 나와 힐 형제와 라이트 부부만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는 바로 그가 이들 두 가족을 개종시킨 선교사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는 비록 이 모임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 보지 못한 특별한 모임으로 폭풍과 암흑 속에서 45분을 지난 후였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서 화평과 행복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폐회 기도가 끝난 다음 감독은 폭풍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고 길에는 전선이나 나무가 쓰러졌을 위험이 있으므로 집에 가는데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렬로 서서 예배당을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가지와 야자수 잎사귀가 길에 깔렸으며

놀랍게도 양쪽 길가로는 우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자동차 불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아리조나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서 우리는 길이 물로 넘치고 전선이 길에 즐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모든 가족이 함께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리에 다다랐을 때 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지붕이 날아 간 집도 있고 땅에 떨어져 부서진 집도 있었습니다. 창문은 우박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나무, 벽, 문짝, 우박 등으로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날 교회에 참석한 우리 동리 사람의 집은 심한 파손을 입은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지붕 널판지와 칸막이 몇 개가 떨어져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딸과 함께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결레, 바켓츠, 심지어 잠옷까지 동원해서 집안의 물을 퍼내고 짜냈습니다.

그날 밤에 것처럼 큰 난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폭풍의 피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가졌던 화평한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곳에는 어떤 이상이 없었는가 궁금해서 가 보았습니

다. 파괴와 혼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붕 널판지 하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피뢰침이 탑 꼭대기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 뒤에서 불과 100피트도 채 못되는 곳에 있는 야구장의 두개의 전봇대는 휘어진 채로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진 방향으로 보아서 폭풍은 정동쪽으로 불었으며 집의 지붕을 날렸고 야구장에서 약 400야드 거리에 있는 빈터를 강타했음에 분명합니다. 집회소 도서실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도 드리운 듯 폭풍은 건물 꼭대기로 불어 올라 갔다가 다시 예배당으로 내려 닦쳤는데, 여기서 50피트도 안되는 주위에는 부서지고 부러진 나무 가지들이 즐비하게 쌓였습니다. 계속 바람은 길로 불어서 몇개 지역을 파멸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불과 약 15분 정도 불어 닦친 폭풍에 사방 12평방 마일의 지역에서 입은 손해는 백만불이 넘었으며, 골프 공만 한 우박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무서운 파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느낌을 지닌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㉞

오르겐 자매는 메사(아리조나) 웨스트 스테이크, 엘마 워드의 주일학교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 가정 주부이다.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도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요행이 갖든 게임은 어떠한 것이든 지 배격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투기심을 조장하거나 특히 교회 회원이나 지역 사회의 역군이 항상 지녀야 할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저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배격해야 합니다.”

히비 제이 그랜트

도박의 악

달린 에이치 오크스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도박이 사람을 끄는 이유는 “무에서 유를 얻는다”는 유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도박이란 일부는 혹은 거의 다 요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이나 활동의 결과에 돈을 거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1925년 9월 21일 히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대관장단 보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도박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도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요행이 갖든 게임은 어떠한 것이든지 배격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투기심을 조장하거나 특히 교회 회원이나 지역 사회의 역군이 항상 지녀야 할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저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이 이상에서 말씀드린 관점과 어긋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¹

교회 지도자들이 행한 기타의 말씀은 모두 이 강경한 입장을 보완하는 것이다.

도박은 오래된 악습으로 옛부터 시행되어 왔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2100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박자를 채석장으로 보내 일을 시켰다. 힌두교 법전, * 코란 탈무드법에서도 모두 도박을 금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도박자를 꾸짖었다.

도박은 중세 귀족 사회에서 크게 성행되었다. 도박을 행하는 사람 자신들도 이것이 적어도 타인에게 해를 미친다는 점을 시인한다. 영국과 불란서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 조처까지 시도가 되었는데, 이는 병정들이 나태에 빠지고 활쏘기 연습을 게을리해서 결국은 국방에 위협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인기있는 도박 중의 하나가 17세기와 18세기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흔했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허용되었

* 힌두교 법전(힌두이즘)—인도에서 유래된 종교, 철학, 문화의 일파.

코란—이슬람교의 성전.

탈무드법—전통적인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능에 근거를 둔 고대 랍비의 기록집.

아리스토텔레스(384~322BC)—그리스 철인

던 복권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576년 영국에서 최초로 범 국가적으로 복권을 시행한다고 선언하였다. 1660년 알제리아 튀니스와 터키의 노예선에 감금되어 있던 영국인을 몸값을 주고 석방하기 위해서도 복권을 시행했다. 180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복권이 유행되어 뉴욕 한 주에만도 200여개의 복권 사무소가 있었다. 1832년 복권표 총 판매고는 6천만불을 넘었으며 이것은 미국 정부 전체 예산의 5배나 되는 액수였다.

이 기간 동안은 믿을만한 은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인기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한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부터 적은 액수로 많은 돈을 모으는 다른 방법은 찾기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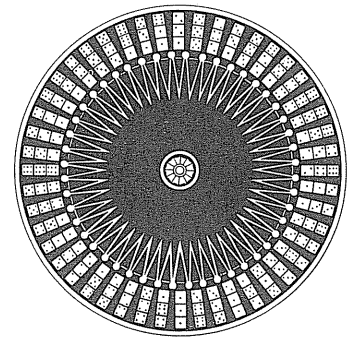
그러한 복권의 장점이 있기는 하나 1800년도 초반기에는 복권에 대한 일반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1850년까지 여러 나라에서 복권과 기타 도박을 금하는 조항을 입법화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조항이 오늘날 합법적인 도박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73년 최초로 영국에서 복권에 대한 반대의 뜻이 표명되었는데 이때 런던 시민들은 복권은 대영제국의 상업을 해치며 국민의 번영과 복리를 해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영국 하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08년 하원은 복권이 끼치는 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결국 몇년 후에 영국에서 복권을 폐지하게 한 이 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매우 타당하고 현재에도 적합하므로 1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상당히 훌륭한 지위를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난과 고난 속에 빠진 예나 가정 불화나 파탄의 예, 어머니가 자녀를 게을리 한 예, 아내가 남편이 벌어 온 수 개월 혹은 몇 년의 돈을 탕진한 예, 옷, 친구, 결혼 반지 등을 잡히면서 까지 이 투기에 빠진 각계 각층의 사람의 예를 들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이렇게 보고했다. “복권의 악영향으로 인해 직접 간접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훔치고, 좋은 주인의 재산을 훔치며, 자살이 성행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죄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마련이다. 그러한 영의 끊임 없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며, 욕하기 쉽고, 세상적인 힘이나 악한 자의 간계로 이리 저리 떠다니게 된다.”



악이 저질러지고 있다...”²

이 위원회는 복권 제도는 근본적으로 악한 특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회가 효과적인 수입원으로 이를 채택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어떠한 제한 조처도 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가가 긴급 재정 자금 조달책으로 복권을 실시할 때 이것이 자금 조달책 중에서 가장 퇴보된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부류의 도박을 주로 상대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것이 물품세를 올려 받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 지도자가 이러한 도박을 피하고 사회에서 이러한 악습을 퇴치하도록 촉구하는 데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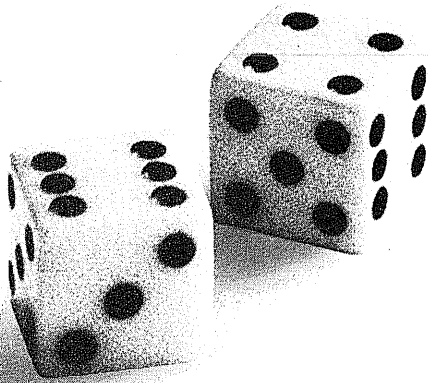
첫째, 도박은 무에서 유를 벌어들인다는 생각에서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되는 노동, 근면, 절약, 봉사 등의 윤리를 약화시킨다. 같은 이유로 도박은 부수되는 온갖 사회 악과 더불어 나태함을 조장시킨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노동이 지닌 윤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량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를 참으로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약과 근엄의 복음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아야 하며 게으른 자는 시운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격도 없다고 가르칩니다.”³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1879~1959)은 도박이 “한 사람이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잃어야 한다는 요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도박에 있어서 요행의 속성은 이에 한번 빠진 사람으로 하여금 요행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믿게 이끈다고 선언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생각에 깊이 빠져서 도박을 통한 요행으로 얻는 것이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⁴

도박의 두 번째 해로움은 이것이 탐욕과 질투심을 조장해 주므로 필연적으로 자기 이웃 사람을 속이거나 그들의 것을 훔쳐 오는 비열한 습성을 갖게 해 준다는 점이다. 미주우리주



캔사스시의 성 바울 신학교 감리교 목사인 리커니스 엠 스타르키 이세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교리로 인정해야 할만한 다음과 같은 말로 도박에 관해서 신랄하게 공격했다.

“이웃에 대한 기독교인의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사회 정의의 구조를 파괴하는 모든 악습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은 스스로 도박을 삼가하게 될 것이며 도박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신 삶의 목적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도 이를 공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⁵

도박의 세 번째 해로움은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려는 나쁜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임받던 회사원이 사장의 돈을 훔침으로써 자신을 망치고 자신과 가족에게 치욕과 비극을 안겨다 준 예를 잘 알고 있다.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한 비참한 이야기도 흔히 듣는다.

도박자가 갖는 병적인 경향 때문에 정부나 개인 기업체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도박으로 소문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도박이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이 흔히 알코올과 기타 악습에 탐닉했을 때 짓기 쉽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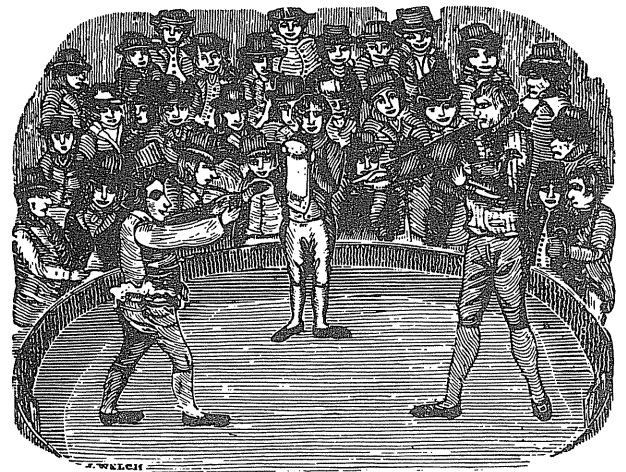
네 번째로 도박의 도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이에 빠진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도박에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도박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보통 가족이나 사업에 게을리하기 쉽다.

도박에 낭비한 시간은 우리가 이에 빠진 많은 사람이 만사를 제쳐 놓고 몰두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아까운 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이 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1906~1971)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박의 정신은 진취적인 것이다. 보통 이것은 점잖게 시작된다. 그런 다음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습관처럼 이것도 자제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되어 간다. 기껏해야 시간 낭비이며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 자칫하면 파괴적인 관념에 사로잡히기 쉽고 무에서 유를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

“도박의 정신은 진취적인 것이다. 보통 이것은 점잖게 시작된다. 그런 다음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습관처럼 이것도 자제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되어 간다. 기껏해야 시간 낭비이며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 자칫하면 파괴적인 관념에 사로잡히기 쉽고 무에서 유를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조장해서 거짓된 생활 태도를 갖게 할 뿐이다.”

리차드 엘 이반스



“오후나 저녁 시간을 카드 놀이를 하며 보내면 아무런 일의 진척도 없고, 새로운 지식도 생각도 통찰력도 얻지 못하고, 새로운 희망과 열망도 얻지 못하며 다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한다. 막다른 길과도 같다.”

존 에이 윗소



을 조장해서 거짓된 생활 태도를 갖게 할 뿐이다.”⁶

도박의 다섯 번째 악은 이미 토론된 다른 유해한 특성에서 나온다.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마련이다. 그러한 영의 끊임없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며, 욕하기 쉽고, 세상적인 힘이나 악한 자의 간계로 이리저리 떠다니게 된다.

도박은 이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감수성을 둔화시킨다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 무서운 결과에서 우리는 도박의 철저하고 무서운 힘을 볼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 장로(1872~1952)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다.

“도박을 하거나 요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인품에서 타락의 쓴맛을 보게 된다.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되며 건전한 사회의 적으로 생을 끝내고 만다. 도박 장소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곳이다. 도박자는 암흑의 날개가 휘휘 소리를 내며 적막을 깨는 순간을 긴장 속에서 살아 간다. 알지 못하는 악의 공포가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보낸다. 그곳은 바로 악마가 거하는 집이다.”⁷

지금까지 말한 도박에는 돈을 걸고하는 카드 놀이, 경마나 운동 시합에 돈을 거는 일, 카지노, 복권, 돈따기 빙고, 주사위 던지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박의 정신 즉 사건의 결과를 보고 노름을 거는 정신은 일종의 투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따르는 악한 정신은 투기적인 증권에 투자를 하거나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따르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

“요행심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크게 작용하며, 우리가 일에 임하는 정신이 크게는 우리가 도박을 하는가 아니면 합법적인 사업을 시도하는가를 결정지어 준다.”⁸

교회 지도자가 항상 경계를 촉구하는 것은 카드 놀이이다. 물론 카드도 돈을 걸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카드 놀이와 도박과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고, 카드 놀이 그 자체가 도박의

리하이이는 아들 니파이를 위해서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니파일은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니일 2:11)일지라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실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의 결과로 리하이가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이 광야에서 고초를 겪을 때 리하이이는 자녀로 하여금 그의 지도력을 계속 신임하도록 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니파이가 활을 부러뜨렸을 때 굶어 죽게 된다는 공포로 인해 리하이이의 가족 중 몇몇이 또 다시 모반을 일으켰다. 니파일은 손수 활을 만든 후 곧장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냥하러 나가지 아니하고 부친에게 가서 이렇게 여쭙었다. “내가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리이까?” 그 후의 일을 니파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친이 주님께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지를 간구하시더라.”(니일 16:23-24)

니파일은 부친에게 순종하였다. 이는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가족이 드리는 기도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리하이이는 현명하게 기회를 마련해주어 니파이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을 해 보게 하였던 것이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는 책임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자녀는 이러한 도움을 간구하는 아버지를 따름에 있어 훨씬 쉽게 자신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어느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모임을 가졌다. 그는 가족에게 바람직한 이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였고 가족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얻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들은 기도드린 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가족에게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가족은 아버지의 권고를 믿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녀가 우리를 따라 오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인도에 따르도록 도와 주는 데에도 어딘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남성은 능력도 많고 신앙도 강하고 영향력이 많은 아내가 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을 보면 주님께서서는 예언자의 부인 엠마는 물론 우리의 아내도 순종심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며 교만을 조심하라. 저를 남편으로 삼은 것과 저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하라.”(교성 25:14)

어떻게 하면 강한 여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 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리와 성약 121:41-42)

훌륭한 결혼의 지침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능력도 많고 신앙도 강하고 영향력이 많은 아내가 거짓없는 사랑을 가지고 설득과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확신을 갖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 가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자녀와 아내의 신임을 얻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족의 신임을 잃을 때가 있다. 리하이이는 이와 같은 실망을 느끼면서도 참고 견디었다. 그는 이러한 실망이 있으리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이다. 꿈에서 그는 가족에게 손짓하며 자기를 따라와 감미로운 복음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였으나 레이맨과 페뮤엘은 이를 거절하였다. 부모가 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 이야기는 화를 내게 해주며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용기를 잃게 해준다. 그러나 리하이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리하이이는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 왔을 때에도 여전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리하이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거의 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의의 갑옷을 두르라 너희 묶인 사슬을 끊고 어둠에서 뛰쳐 나와 티끌에서 일어서라.”(니이 1:23)

만약 우리가 리하이이의 생애와 레이맨과 페뮤엘이 모반하던 기간만을 생각한다면 아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희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리하이이의 희망은 오늘날 그의 후손인 레이맨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이 틀림 없다. 인내로써 쉬지 않고 가족이 구세주를 따라 오도록 손짓함으로써 리하이이는 현대에 사는 그의 가족에게까지 여전히 손을 뻗치고 있다. 그의 후손 수 천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후손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가 완전히 순종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를 위해 봉사하면 기쁨을 얻으며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와 교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족에게 심어 줄 수 있다. 순종하는 자녀는 구세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 우리를 따라 올 것이다. ☐

아이링 박사,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소재, 렉스 대학교 학장, 현재 렉스버그 스테이크 공동 평의원.

유시비어스가 관찰한

대 배 도

하이드 엠 메릴

“현대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똑바로 가늠해 볼 수 있는 17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 보면 우리는 교회 내의 배도와 이단에 대해 유시비어스가 기록한 많은 참고 자료를 접하게 된다.”

역사상 가장 흥미있는 시대의 하나는 초기 기독교 시대이다. 말일성도에게 주는 이 시대의 중요성을 우리는 무지하였기 때문에 간과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시대에 책을 쓴 역사가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역을 베풀던 시기에 세우신 교회의 운명을 소상하게 비극적으로 묘사한 역사가들이 있었다.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 중에 속하는 유시비어스는 중국에는 복음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대배도의 시작을 직접 목격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썼다.

유시비어스는 서기 260년 갈리리 바다의 서남쪽에 자리잡은 지중해안 항구인 시저리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젊은 시절에 벌써 탁월한 면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의 종교관으로 인해 309년에 투옥되었다가 311년 재차 투옥되었다. 그후 314년 시저리어의 사교가 되었다. 그 곳에서 그는 팜피루스(시저리어의 사제, 서기 309년 2월 16일 순교)가 창설한 도서관에 출입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그는 무려 46권의 저서를 내었으나 철저하고 정확을 기하는 저자였다. 그는 자신이 숭배하였고 침례까지 준 콘스탄틴 황제(서기 280-337, 로마 황제)가 죽은 후 2, 3년이 되는 서기 339년부터 340년 사이에 죽었다. 유시비어스가 남긴 큰 공헌의 하나는 열 권으로 된 “성역사”를 편찬한 일이었다. 이 책은 서기 326년 이전에 씌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책을 보면 그는 사도의 죽음에서부터 콘스탄틴 황제의 공적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물몬이즘의 특색의 하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지구와의 관계에 관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등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을 들 수 있다. 유시비어스도 알고 있었던 이같은 지식은 그후 신회의 성격에 대한 혼란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주를 다스리는 총 원수요 형성자인 하나님 아버지는...그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에게 만물의 창조를 위임하셨고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인간의 창조에 관하여 토론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참조)

“이 말은 다른 예언자가 확인한 사실이다. 이 예언자는 찬송을 통해 그를 다음과 같이 신성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니 그들이 생겼고’
‘그가 명하니 그들이 창조되었네.’

그는 아버지 곧 조물주를 최고의 통치자처럼 황제의 칙령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성스런 말씀—우리는 이외에 또 다른 분이 없다고 선언함—즉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자로서 소개한다.”¹

“유시비어스는 그리스도가 고대의 백성에게 직접 알려졌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이미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

함에게 나타나신 이래 친히 이삭에게 지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와 그 후의 선지자들과 자유로이 대화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사실이다...분명히 우리는 최근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나라에 선포된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하나님—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곧 직접 나타나신 분으로부터 성스런 명령을 전해 받은 아브라함에 의해 알게 된 모든 종교의 최초요, 최고로 오래된 원시 교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²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원성에 대한 이같은 개념은 말일성도에게는 잘 알려진 훌륭한 사실이다. 하지만 유시비어스의 저서 번역자인 한 영국 국교 신자는 유시비어스의 견해 대로 현세의 세속적인 무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구약에 나타난 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사람의 형상을 가진)의 모습이라고 하는 유시비어스의 견해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확신과 인간과 신의 대면에 관한 이야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³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하여 결국 이와 같은 값진 지식을 상실하게 될 배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글에서 유시비어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라비아의 보스트라 사교인... 베리루스는 교회의 참된 교리를 외곡시키고 신앙과는 다른 개념을 이끌어 내려고 애썼다. 실제로 그는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이 인간

과 더불어 거하기 위해 지상에 처소를 마련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지니고 천세에 살지 않았으며 스스로 신정을 지닌 분이 아니라 다만 그 안에 아버지가 거할 뿐이라고 확신하였다.”⁴

신권의 직분 중에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말일성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70인의 부름이다. 유시비어스가 과연 이 직분의 임무를 이해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가끔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맛디아와 제비를 뽑아 그와 같이 높임을 받은 또 한 사람은 모두 이전에 70인의 부름을 받았던 자였음이 틀림 없다. 다대오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70인 외에도 구세주의 다른 제자가 있었다.”⁵

유시비어스는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70인인 다대오”가 행한 선교 사업과 병고침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약간 인용하고 있다. 그는 70인의 부름이 고대 교회에 있었던 직분이며 이 직분의 책임은 주님이 70인을 보내어 전도하게 한 첫번 선교 사업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눅 10 : 1-12 참조)

유시비어스는 70인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되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기원전 150~215, 희랍 기독교 신학자 및 교육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의로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 이후 그에 의해서 한층 높은 수준의 지식을 부여 받았다. 이들은 이 지식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고 다른 사도들은 이를 70인에게 전해 주었으며 바나바는 이 중에 하나였다.”⁶

이와 같이 현대 우리의 입장을 똑바로 가늠해 볼 수 있는 17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교회 내의 배도와 이단에 대해 유시비어스가 기록한 많은 참고 자료를 접하게 된다. 이중 대단히 유해한 것의 하나는 독신 교리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결혼한 사도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결혼을 비난한 자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사도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와 빌립이 자녀를 두었으며 빌립은 딸을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아내에게 문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내를 동반하지 않은 것은 그의 선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⁷

그는 다시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축복받은 베드로가 그의 아내가 죽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부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기뻐하였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와 위로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주님을 잊지 말아요.’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축복받은 자들의 결혼이었으며 그들의 가장 소중한 배우자에게 향한 완전한 느낌이었다.”⁸

유시비어스는 리옹의 사교인 이레내우스(서기 130-200년) 희랍 교회의 시조의 말도 인용하고 있다.

“...엔크레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젓 소

내가 9세였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무척 현명한 분이셨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기셨다. 물론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란 옥외에서 하는 허드렛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난로에 지필 장작을 패는 일과 잔디를 깎는 일이었다.

건초를 모으는 일은 참으로 재미있었다. 나는 즐겨 건초단을 헛간에 쌓았다. 높이 쌓아 놓은 건초 더미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뒹굴고 술래잡기도 하는 좋은 놀이터였다. 때때로 건초 더미 속에 묻힌 암탉의 둥우리에서 계란을 발견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롭다!

나의 어머니는 우리가 단지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우리는 함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노래와 기도를 가르치셨고 교회에서 가져야 할 태도도 가르치셨다.

어머니가 젓소 한 마리를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책임”을 말아야 했다. 이 “중요한 책임”이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짜는 일, 젓소 우리에게 소먹이인 건초를 넣어 주는 일, 가까운 개울가에서 젓소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안했다면 젓소는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꼈을 것이다.

가끔 집에 늦게 들어 갈 때면 나는 젓소를 돌보는 일을 안했으면 하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p>친구가 친구에게</p> <p>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데이비드 비 하이트</p>
---	--



그림 : 셰리 톰슨

어느날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젖소가 울타리를 부수고 달아나 버리고 없었다. 있을만한 곳을 다 찾아 보았지만 젖소를 발견하진 못했다. 생각나는 곳을 모두 살살이 찾아가 보았으나 젖소는 역시 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나는 낙담이 되었다. 젖소가 없어진 것을 어머니가 아시면 틀림없이 걱정하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웃에 있는 몇 집에 우유를 팔아 왔었다. 나는 그들이 내가 배달하는 신선한 우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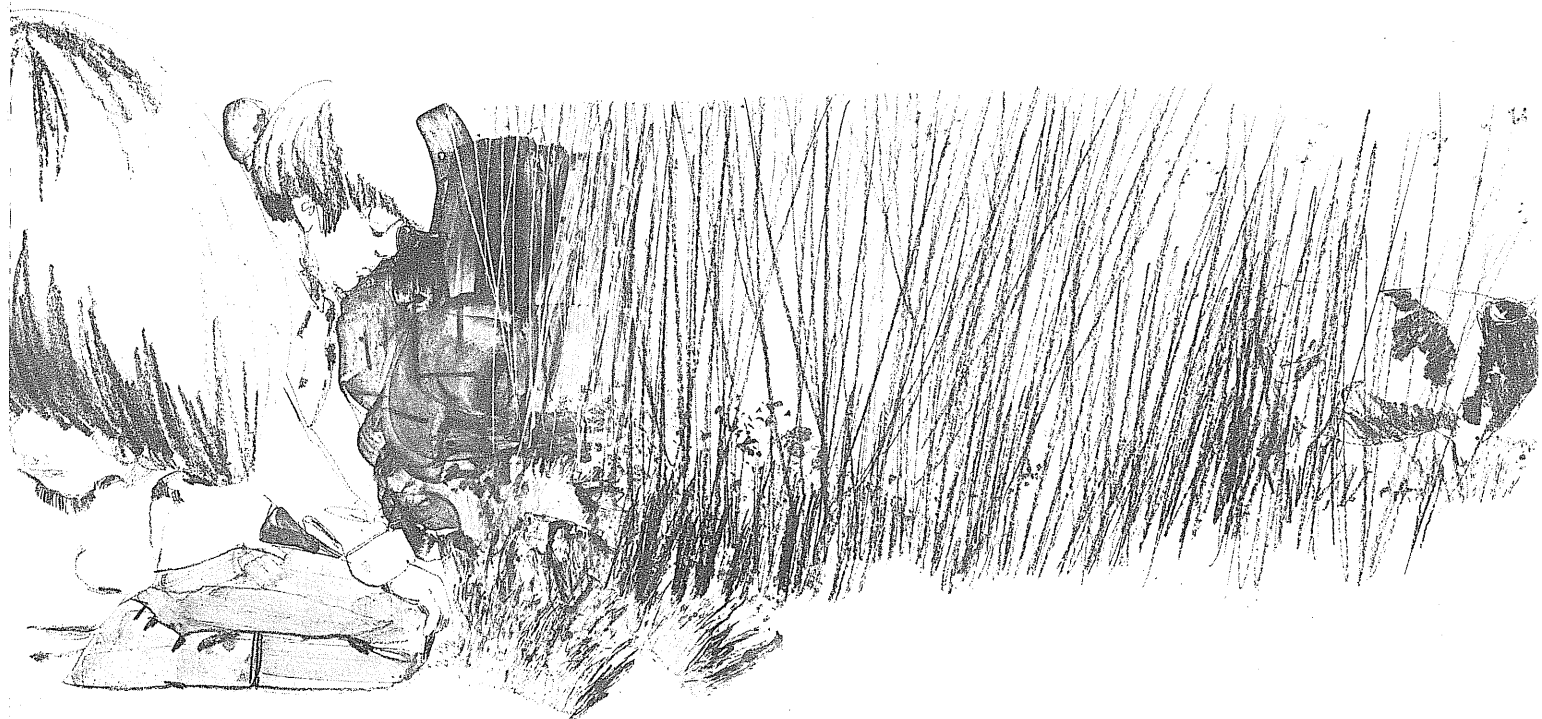
그날 저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나는 기도를 배웠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도랑 옆에는 작은 관목이 무성한 곳이 있었다. 나는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는 주님께 이 문제를 말하며 젖소를 찾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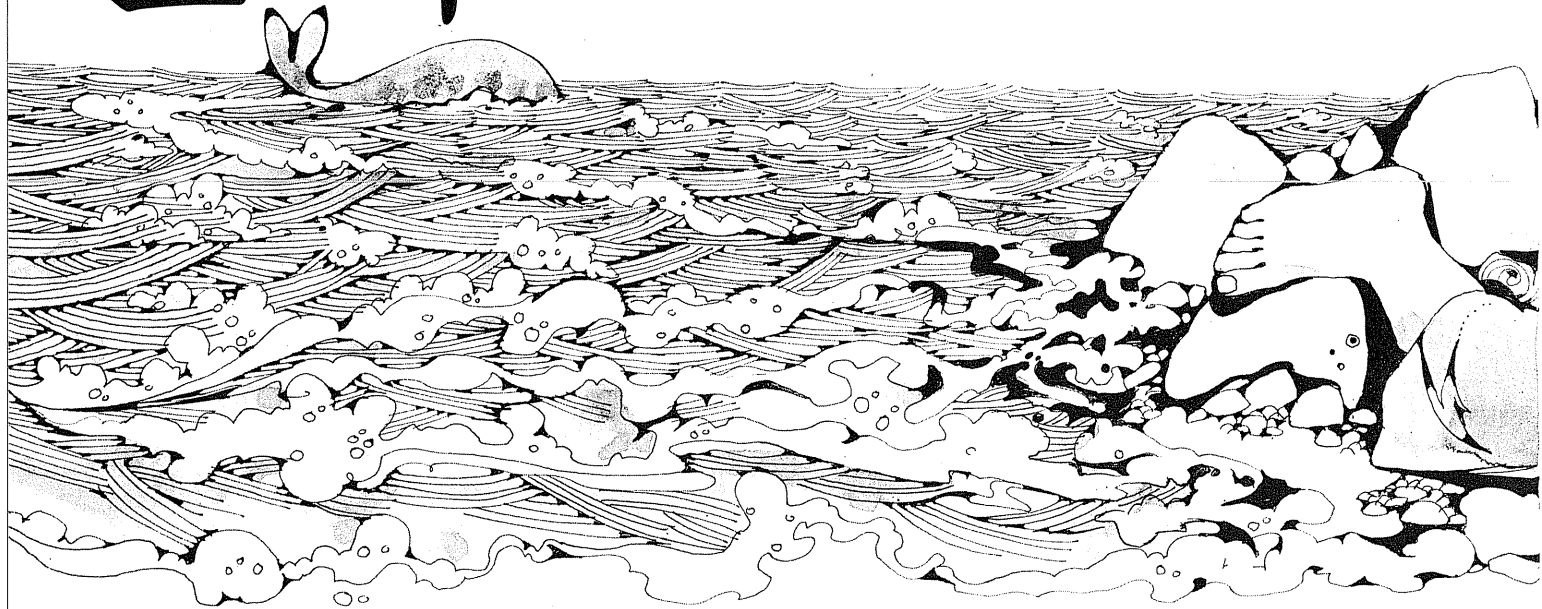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도랑을 따라 걸어 내려 갔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우리 젖소를 발견하였다. 젖소는 도랑 옆 키가 큰 버드나무에 가려 있었다. 버드나무와 젖소의 색깔이 비슷하여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했으며 또한 나의 발걸음을 젖소가 있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늘 나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관목 속에서 도움을 구하던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

나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나



글 : 매리 엘 러스크

그림 : 제리 하스튼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은 1:2)”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성읍의 사악함을 알고 있었던 터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단말인가?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읍바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에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 샅을 치르고 갑판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낫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배 밑 자기 방으로 내려 가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배가 큰 물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소리높여 부르면서 물결을 잔잔케 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은 잦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내려 와서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은 1:6)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요

나에게 혹시 이 재앙이 무슨 이유로 임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또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은 1:9)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낫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은 1:11)라고 선원들이 외쳤습니다.

요나는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미안하게 여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줄을 내가 아노라”(은 1:12)

선원들은 그리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진정시켜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곧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으셨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갈색 눈은 어두웠다. “일이 잘 안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걱정어린 할머니의 눈을 쳐다 본 이가머크는 찬얼음을 끼얹은 듯이 오싹함을 느꼈다. “그럼 엄마랑 아기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가 제셔야 할텐데,” 할머니는 말을 이으셨다. “병원엔 사백리나 떨어져 있고 게다가 이 늙은이와 어린너만을 남겨 두고 아빠는 고기잡이를 나가셨으니 어떻게 네 엄마를 의사에게 보인단 말이냐?”

이가머크는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 보면서 잠잠히 서 있었다. “비행기로요, 할머니!” 이가머크는 흥분된 어조로 외쳤다. “비행기가 와서 엄마를 데리고 가면 돼요.”

“그래, 비행기가 오면 되겠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하나? 무전기가 우리 집에는 없지 않니? 가까운 전신국이라 해도 십리는 떨어져 있으니 말이다. 난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고, 또 간다 해도 내가 그 곳까지 길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단다. 너도 너무 어려서 갈 수 없지.”

“제가 가겠어요, 할머니.” 이가머크는 힘차게 말했다.



“제가 가서 테일리 아저씨에게 비행기를 보내 달라고 말하겠어요.”

“길을 확실히 알고 있냐?” 할머니가 물어보셨다. “날씨는 춥고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데 곧 날이 저물거야.”

“길을 알고 있어요.” 이가머크는 털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면서 말했다.

“너는 용감한 내손자야”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제 곧 바로 그 곳으로 가는 거다.”

이가머크는 잘 다녀 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콧등에 매섭게 불어왔고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는 수백 마리의 생쥐가 짹짹거리는 듯하였다. 이가머크는 눈길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멀리 떨어진 전신국으로 급히 가고 있었다. 곧 그의 집에서

홀려 나오는 불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홀로 있게 되었다. 흰 눈으로 덮힌 세계에 작은 점이나 다름없는 이가머크 홀로 있게 된 것이다. 이가머크는 지치도록 달렸다. 그러다가는 걸고 또 달리고 또 걸곤 하였다.

그러다가 이가머크는 그의 뒤의 어두운 곳에서 살그머니 나오는 늑대 두 마리를 보았다. “늑대는 사람을 다치지 않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늑대는 순록만 잡아 먹어.” 그러나 늑대가 그의 뒤를 따라 걸어 오는 동안 그의 조그만 가슴은 터질듯이 심하게 뛰었다. 두 개의 큰 회색 그림자는 이가머크의 뒤를 쫓아 냄새를 맡으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저 멀리 앞을 내다 보아도 희미한 흰색 뿐이었다.

늑대는 좀처럼 멀리 가지 않았으며 이가머크는 도망을 가서는 안되고 두려움을 보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털장갑 한 짝을 떨어뜨렸다. 늑대가 멈추어 장갑 냄새를 맡는 동안 이가머크는 열심히 앞을 보며 걸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늑대가 털장갑을 이리저리 냄새를 맡아 보는 동안 이가머크는 늑대와 의 거리를 좀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늑대도 곧 그를 다시 따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가머크는 멀리서 반짝이는 전신국의 불빛을 바라 볼 수 있었다. 뛰어 가고 싶었지만 아직도 늑대가 가까이 있으므로 걸어 가야 했다. 조용히 그는 다른 쪽 장갑을 뺐다.

늑대를 조금만 지체시키면 전신국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늑대가 따라 오기를 멈출 것으로 생각했다. 이가머크는 그의 마지막 장갑을 늑대 바로 앞으로 던졌다. 놀랍게도 늑대는 뒤로 물러 서더니 조심스럽게 닳아와서 눈 위에 떨어진 털 장갑의 냄새를 맡았다.

이가머크는 반짝이는 빛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침착한 마음으로 계속 걸었다. 곧 그는 전신국 건물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이가머크가 마을에 가까이 닳아 가자 늑대는 잠시 머물러 그를 바라 보다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가머크는 전신국의 문을 부수듯이 밀고 들어 가서는 “데일리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파요!”라고 외쳤다. “지금 금방 병원에 가셔야 해요!”

무선 기사는 종이 상자를 꾸리고 있던 종이였으나 곧 단파 무선에 스위치를 켜고 사백리 떨어진 공항으로 무



선을 보냈다.

그리고 데일리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소년에게 몸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행기가 곧 도착해서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거다. 비행사 아저씨에게 엄마가 계신 곳을 정확하게 알려 주었거든. 엄마가 곧 병원에 가시면 모든 일이 잘 될거야.”

이가머크는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들으며 무선 기사를 도왔다. 비행기 소리를 듣기까지 몇 시간이 지난 것만 같았다. 건물 위로 다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가머크는 엄마가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알았다.

“자,” 무선 기사가 말했다. “이젠 쉬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 소식을 기다리자꾸나, 응?”

이가머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기가 그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무선 신호가 왔다. 기사는 이어폰을 끼고 무선을 받았다.

“남동생이 생겼구나!”

밝은 미소를 얼굴에 담뿍 담으며 데일리 아저씨는 말

씀하셨다.

이가머크가 말을 하려 하자 기사가 손을 들었다. “잠깐 기다려. 남동생 두 명이야. 쌍동이 남동생이란다!”

이가머크는 웃었다. 그는 방을 돌아 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동생이 들어야, 둘!” 이가머크는 소리쳤다. “동생 하나 있는 것보다 두 배나 기뻐요.”

“물론이구 말구” 데일리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자, 우리 이 좋은 소식을 할머니에게 빨리 전해드리자. 내가 스노우 모빌로 집에까지 바래다 주지.”

스노우 모빌을 타고 눈 위로 미끄러져 갈 때 이가머크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 늑대나 잃은 장갑 생각은 나지도 않았다. 그의 가슴은 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할머니에게 전해야지 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스노우모빌 : 눈 위를 여행할 때 사용하는 탈 것으로 스키와 같은 활주부와 탱크와 같은 바닥이 있다. (그림을 참조.)

자유케 되려면 율법을 상고하라

행 스 형제에 뒤이어 나는 시온의 청소년에게 몇 마디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시온의 청소년을 사랑하며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참조)는 훌륭한 진리를 가장 역력하게 묘사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옳은 일을 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으며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증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비록 계약된 증으로 있었으나 요셉은 동기야 어떠한가? 모든 경험과 상황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신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주님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운명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종의 몸이었으나 요셉은 주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그의 계명대로 준행하였으므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레몬의 맛이 시다고 불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달콤한 레몬수를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에



하트만 렉터 이세
70인 제일 정원회 회장

게 달려 있다”라고 말한 데일 카베기*의 말은 이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으며 그의 주인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의 집 전체를 돌보는 관리자로 요셉을 택하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보디발이 그의 모든 재산을 맡겨도 안심할 정도로 이 유능한 젊은 청년을 신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범한 청년은 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마련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몹시 의심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조리있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가진 제반 소유물...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창세기 39:8-9)

보디발이 요셉을 극히 신임하였으므로 그 신임에 보답하는 의미로 요셉은 부인의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인에게 충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서 우리는 이 젊은 청년의 참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창 39:9) 요셉이 한 이 말은 우리에게 요셉이 옳은 일을 택했으며 그것은 옳은 이유로 행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 이유란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고용주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심은 정직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흔히 합리화라고 말하나 역시 거짓일 뿐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신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전연 이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는다면—물론 그릇된 예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여러분은 주님에게 전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 데일 카베기(1888-1955) : 미국 저자 및 연설 교사

애급으로 팔려간 요셉이 주는 교훈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러나 여러분은 항상 나쁜 본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 다시 말하여 경전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창 : 39) 이유를 명백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여호와께 모든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는 이 교훈이야말로 시온의 젊은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교훈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여하한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흔들리기 쉬운 바탕 위에 세워진 행위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선가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가 올 것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따라 가게 될 것이며, 주위 동료의 압력에 휩쓸릴 것이며, 명예, 지위, 찬사, 순간적인 격정, 그 밖의 세상적인 동기에 휩싸일 것입니다. 행위의 동기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없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변하는 변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무엇이고 부패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매년 신행 자동차가 나오듯이 단지 변화를 위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 13 : 8 참조) 요셉이 찾아 갔던 주님으로의 길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시편 139 : 7-12)

달 위를 거닐지라도, 우주의 광대함을 관찰할지라도, 깊은 바다 속이나, 암흑의 아프리카에나, 솔트레이크시에 있을지라도 그 곳에는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이 지상에 살아계신 예언자를 바라보고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를 따르는 것이 주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은 예언자의 말만을 인용하며 현재 살아있는 주님의 예언자에게는 들을 던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을 따르는

것만이 이 타락의 시대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요셉의 예를 따름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은 보디발의 부인의 접근을 요셉은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창 39 : 11)

언제나 이와 같은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만 합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의 옷을 붙들고 가까이 하려 하면서 더욱 심하게 유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가장 현명하고 정당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창 39 : 12) 이것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행동이 고상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망하여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알았다면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요셉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만일 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간신히 나무 꼭대기를 스칠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26년간 해군 비행기를 탔습니다. 물론 나무에 가장 가까이 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무가 닿을까 말까 한 고도에서 비행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엔진이 꺼져버리면 비행기는 나무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해군이 “숲 속으로 비행하지 말라”는 계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해군에는 그러한 계율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 계율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 해군 계율에 대한 자기 자신의 다음과 같은 계율을 첨가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숲 위를 지날 때는 최소한 숲으로부터 5000피트 상공으로 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숲으로 비행하지 말라는 해군의 계율을 쉽게 지킬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율도 극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후자의 계율은 여러분 자신이 첨가한 계율이며, 따라서 법률과 혼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세운 계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계율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이 엄습하려 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기회를 완강하게 피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는 바울의 훈계는 “너희는 악을 버리고” “스스로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라”(교성 98:1, 88:86)는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면 주님의 계명을 보다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혼인 젊은 남녀는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쌓아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라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몇 가지 장벽을 제언하려 합니다.

1. 절대로 아무도 없는 집에 이성 과 둘이서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2. 절대로 아무도 없는 방에 이성 과 둘이서만 들어 가지 마십시오.
3. 네킹 또는 페팅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하자면 경전 상에는 어느 곳에서도 “네킹 또는 페팅을 하지 말라”는 귀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찌니라”고 주님께서서는 명하셨습니다.
4. 호색 문학을 읽지 마십시오.
5. 미성년 입장 불가로 된 영화를 관람하지 마십시오.
6.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사실, 이상의 제언은 여러분이 채택할 몇 가지 개인적인 계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특수한 계율, 즉 “나는 다시는 이 형제와 데이트를 않겠다”는 자신에 관한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계율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자신의 약점에 비추어 보아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장벽이 언제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그 계율을 깨뜨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셉과 그의 모범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도망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범하기 전에 악에서 나오십시오.


요셉은 도망하여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잠시 동안 감옥에 갇혀 사회로부터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도망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림받은 영원한 감옥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의 젊은이가 그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 그들에게 내리실 큰 축복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교전 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오직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20-21)

다시 주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이유으로써 우리 모두 의의 길을 걸도록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도자로서의 첫째되는 성공의 비결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우선 개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결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심한 신성모독은 불경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있으면서 입으로만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가장 큰 저

개종자

십이사도 정원희 보조
스터얼링 더블류 실장모

주를 내리셨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시몬아...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 : 31-32)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이미 개심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약간 분개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의 사건은 베드로까지도 완전히 개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누군가가 오늘날의 종교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단지 “성경 본위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가 대학생활에 철저히 젖어 들지 않는 한 우리가 대학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교회에 입교함으로써 인간은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나 참으로 큰 일은 교회가 인간에게 들어감으로써 시작된다.

몇년 전 조사해 본 결과 대상자의 95%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에 진실로 개종하였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효는 극히 적은 것이다.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으로 인하여 999명이 정직을 배울 수 있다고 모한다스 케이 간디가 말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은 정직을 믿는다.

모한다스 케이 간디—마하트마라고 불림—(1889—1948) : 힌두교인 국수주의자,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아테네시를 대낮에 횡불을 켜들고 찾아다니던 디오게네스를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내게 정직을 믿는다고 질문한다면 나는 약간 분개할 것이다. 내가 정직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께 말

씀드리고자 한다.

가족을 데리고 아리조나로부터 차를 몰고 오다가 우리는 주유소에서 잠시 멈췄다. 차를 세차하고 기름을 넣는 중에 나의 한 아이가 “소다수를 마시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소다수 무인 판매기로 다가 가서 10센트짜리 동전을 넣었다. 소다수 병이 하나 나왔다. 또 10센트 동전을 넣고 병을 하나 받았다. 세번째로 동전을 또 넣고는 다시 병을 받았다. 그런데 기계가 그 후에 정지되지 않고 네번째 병이 또 나왔다. 결국 30센트로 4병을 받은 것이다. 소다수를 갖다 주러 차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 잔돈을 슬쩍한다고 고발하지는 않을테지. 그러나 나의 머리에 있던 작은 영의 파수군은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봐, 스터얼링, 기왕 악한이 될 바에야 더 큰 악한이 되어보지 그러나.”

소다수가 25센트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와 10센트를 넣었다. 내가 정직을 믿는다. 또는 안믿는다고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는가? 나 외에는 보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소다수 무인 판매기에 있을 때 무엇에 의거하여 행동하겠는가? 내가 복음의 진실함을 믿는다. 또는 안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간증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교회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라

해롤드 비리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나는 이 순간 이 위대한 대회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그리고 그 직후에 주님의 말씀이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지도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어 선포된 후 주님은 교회 대관장에게 계명을 주셨고 높은 곳에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첫째로 “타락한 어느 백성의 기사와...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교성 20:8-9),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이를 구하는 자들에게 표준이 되게 하였습니다. (교성 45:9) 세째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온 나라에 권세로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교회 정사, 4권 537페이지 참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인류를 괴롭히는 병을 고치는 처방을 얻지 못한 채 이를 갈구하며 미결된 채 남아 있는 세상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얻으려 하고 틀린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이 절망의 시대를 예견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뺨이나 물의 기근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기근”이 지상에 도래할 날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



하되 얻지 못하리니”라고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아모스 8:11-12)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도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과잉과 산야 제한에 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유산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세계적으로 번지는 자유에 대한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합니까?

범죄의 동향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부도덕의 추세를 감소시키며 자존심과 책임감과 도덕적이며 신체적인 훈련을 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전할 몇 가지 말씀의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저는 약 10년 전에 데이비드 오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극히 중요

한 요목을 다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과 불안으로 가득찬 오늘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의무이자 으뜸이 되는 책임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선언하고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12월 903페이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띄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테후서 4:2-4)

또한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테에게 작별의 글을 보내면서 ‘모든 회원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열심히 열의를 다하라]”고 한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 혼란한 와중에

서 참된 말일성도의 마음에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 답은 구름 한 점없는 하늘에 떠 있는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의 계획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제반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곧잘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니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 계획의 기초는 개인의 신성함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사랑 하는 아들은 인류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이 지상에서 그를 대표할 권능을 가진 분들을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생명의 계획, 생명의 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할 책임은 교회의 전 회원에게 있으며 특히 신권을 받고 지도자 및 증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12월 1093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 처음 이를 선포하실 때와 같이 1972년인 지금에도 적용됩니다. 생명과 존재가 지속하는 한 그러한 진리는 인간의 발전과 행복의 기본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육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변혁이 있으려면 도덕적인 이상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미주우리 대학교, 제이 윌리엄 하드슨 박사)

자신이 아는 바가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적은 지식도 위험한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사회 학자들에서 보듯이 이를 비웃는 자들은 그 말씀을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한 자가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 세대에 주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목표에 대해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던 당시에 성도들은 적의 위협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힘쓰라.”(교성 98:16)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준행하면 나 주는 모든 노여움과 분노를 너희로부터 거두어 가리니,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교성 98:22)

교회 초기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이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는 때를 기다리라”(교성 58:21-22)

이 경륜의 시대에 영감받은 예언자이자 위대한 지도자인 요셉은 우리가

신앙개조라고 부르는 이 백성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11조)

이 선언에 따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정부 당국에 순종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은 원수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되,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명을 받았읍니다.

주님은 만약 우리가 분노와 증오를 다스려 누를 수 있다면 사탄의 세력은 감히 침노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악에 대한 투쟁이나 철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를 제압하지 못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주님은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여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게 하라는 율법을 주신 후에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최악 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라.”(교성 68:31)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거리 대신 태만을 조장하는 정책을 채택했으며 나태나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기밭 아래에서 하나로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쳐
어떤 개종자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바라고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

개척 시대의 지도자인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한 개척자 정치인으로서 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 배웠으며 이제 하나의 원칙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거리가 있는데 그저 돈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것을 주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원칙이며, 나는 이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길을 택하면 어떤 사회이든지 멸망될 것이며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브리감 영 연설집 [데저렛 서적사 1943] 274페이지)

저는 잠깐 화제를 바꾸어 복지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던 몇년 전 오늘 아침에 지도자들이 향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먹고 입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의식 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자존심과 창조적인 활동과 영예로운 노동과 봉사로서 영원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 안전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태만 속에서 자란 세대는 온전함을 지켜 나가지 못합니다.” (리처드 엘 이반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39권[1936] 768페이지)

“처음부터 복지 계획의 원대한 목적은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공히 인격을 쌓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 깊숙히에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영의 풍요로움에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결국 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며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앨버트 이 보우엔 교회 복지 [데저렛 주일 학교 조합 1946], 44페이지)

여러분이 하늘의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성스럽고 영감으로 충만한 훈계의 말씀을 실천하

도록 교회 회원에게는 가족이 참여하고 배우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법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세상적인 구원의 계획을 얻게 되었으며 이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노동을 제공하거나 돈이나 봉사를 제공하며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나 생산자가 되며, 따라서 곤란해 하거나 말없이 속으로만 고민하는 일이 없이 필요에 따라 일하고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보조 조직 및 신권 정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동을 하게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의 청소년 활동에 관해서는 한 외부의 관찰자의 말대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여 “청소년들이 훌륭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갖게 하여 나쁜 활동에 참여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건전한 사회 원칙의 기반이 범죄나 실업, 청소년 범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불안과 고난의 씨앗이 주님이 경고하신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삶의 원칙과 주님의 구원의 교리를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악의 권세가 가정과 국가와 온 세계에 분쟁을 가져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 대신에 겹을 주러 왔다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 10 : 35-36)

바로 이러한 일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적용하는 문제를 상기하

도록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이 백성이 여러분의 지도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교성 21 : 6)

우리는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매달리게 지상의 영예로운 것을 구해 인류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이 교회의 회원들은 의와 악의 끝없는 투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십이사도에게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으며, 우리도 이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시험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듬어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심금을 비틀어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존 테일러 설교집, 24권·197페이지)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이 극에 달한 나라에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미리 막거나 출생 전후에 생명을 죽이는 조처를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을 펴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의 무지를 타파하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의로운 삶의 원칙과 자제와 건전한 경제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길을 알으켜 주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이사야 2:2-3 미가 4:1-2 참조)라는 옛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부 체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가 이미 인용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는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세상의 축복과 자유가 실현될 것입니다.

자유와 원수들이 퍼뜨린 산만한 교리 중 가장 위험한 것의 하나를 예언자이며 정치가인 우리의 사랑하는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가 그 본질을 특징지어 준 바와 같이 그것은 “경전에 정의된 바 대로 주님의 협동 교단의 계획을 모조하려는 사탄의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 복지 계획은 이 교회가 이 계획에 입각하여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이는 물론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이 모두 주

님께로 개종한 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왔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희생과 성별의 율법에 좇아 살아감으로써 이 지상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니사 3:16)고 되어 있듯이 우리도 것처럼 살아가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이 “예배 의식”이라고 특정 지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리를 다른 것으로 매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무리 진지하다 할 지라도 위협과 싸우는 하나님의 신권 조직 대신 다른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혼란만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또 이러한 일로 교회 내에서 형제와 형제들 서로 맞서게 했으며,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신권 조직을 통하여 이러한 악과 싸울 무기로 마련하신 단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한 무리 중에서 일을 거것으로 꾸미는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여 다른 길로 떨어져 나가고 배도하게 되어 교회에서 파문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권의 지도력에 따른다면 사탄이 그 권속에서 세도를 부릴 때 주님은 그의 계시의 첫머리에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성 1:36)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 것발 아래에서 하나로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쳐 어떤 개종자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바라고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든 다른 조직보다

그가 인간에게 위임한 그의 신권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예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통치하십니다.

이제 저는 끝으로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겸손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말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 기도를 들으소서, 교회와 온 세상의 의로운 형제 자매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스럽고 하게 하시옵소서. 사태처럼 이 세상에 밀어닥치는 악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 속에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려는 의지가 더욱 커지게 하옵시고, 물이 깊은 골을 덮듯이 진리가 이 세상을 덮을 때, 당신의 예언이 성취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와 당신의 사업에 관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 당신의 전능한 권세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보호의 눈길 아래 두며 저희를 홀로 두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 덧붙여 이 교회의 회원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신앙개조 3조)는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가 참여한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그 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합당히 준비할 때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단, 장막, 우물



에이 데오도르 터틀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 : 25)

단, 장막, 우물.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은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높은 경지에 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열 두 지파의 아버지인 그의 아들 이스라엘처럼 인간에게 강하게 감명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가정을 돌보았고 자기의 일을 충실히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평화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이 소박하고 또 평범한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성품으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 장막, 우물 : 그의 경배심, 그의 가정, 그의 일, 생활의 이같은 기본 사랑은 그의 하나님, 그의 가족 및 그의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와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삭은 돌 제단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는 그 곳에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

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 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는 종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줍니다. 회복된 충만한 복음은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발전하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하여 아버지께로 돌아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회복된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시에 의해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최초로 태어난 분이며 육으로 태어난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입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 : 3)이 바로 그분의 사업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 분은 이 말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시대에 인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는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아 그의 성스러운 목적을 수행하도록 성임을 받은 살아있는 예언자와 사도가 있습니다. 그의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의 택함을 입은 예언자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갖는 관계

가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오늘날 계시로 확실한 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답으로 화평을 찾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알기 위해 제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와 가족의 처소인 장막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그에게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말일성도에게 가정이란 우리가 전세계에 살았던 천국의 집을 닮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신권이 있는 가정은 우리가 알기로 가장 높은 영적인 단위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가족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통해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원리를 가르치며 가족을 영원히 결속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교회의 첫째되는 목적은 가족을 완전케 하여 승영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본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가족이 한 단위로 함께 해의 영광에서 살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생애의 영원한 본질 즉 전세와 현세에서의 목적과 미래의 운명에 대해 알

아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이것은 물론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는 “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교성 121: 41-42) 가정을 이끌고, 가정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여자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 2: 18)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막 10: 8)

주님의 귀한 종의 한 사람인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영원의 안목으로 여성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브에 대한 말씀은 곧 모든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하여 이브는 아담의 신권 사명을 위한 한 반려자로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위해 장식하고 가꾼 동산에다 순결하고 성스럽고 티없는 이브를 데려와 그가 지은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곳이 지상에 있는 천국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들에게 육신을 입을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육신의 창조자로 왔으며...이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그분의 큰 계획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참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란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무한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복잡한 구조를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어머니의 임무이며 기회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것은 결코 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충만한 영광은 그녀가 이 시련의 세상에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먹이고 옷을 입혀야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돌봅니다... 아기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아기의 서투른 걸음마를 조심스럽게 보살피 줍니다...”

“이렇게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녀를 지도

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그들은 지상의 가정에서 승영에까지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운명을 주십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운명을 이끌어 나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자녀를 갖기 위해 그 곳에 있을 것입니다...”(불멸과 영생[멜기세덱 신권 공과 1969-70] 2권, 24-28페이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내와 어머니가 합니다. 남자들은 이같이 크고 놀라운 봉사를 한 어머니 앞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고개 숙여 절할 것입니다.

모성과 여성의 숭고한 역할을 추락시키는 요즈음 때 도는 허튼 이야기나 낙태와 이에 따른 죄악을 예사로 보아 넘기는 일, 하나님이 여자에게 부여한 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 등과 이상에서 든 여성의 참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실시되며 가르쳐지고 있는 영원한 계획에서 본 여성이 지니는 높은 위치와 본분보다 더 높고 숭고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의무는 태만하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탁아소나 학교 교실이나 교회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가족의 책임은 성스러운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율법을 어길 때 영원한 구원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뜻있고 성스러운 부

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기쁨이 자라나고 목적이 성취됩니다. 해롤드 비 리 대판장님은 “교회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 : 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장막에 있는 그의 가족을 마음에 두고 제단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그가 파게 한 우물을 돌아 보는데 그의 일하는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가 흙과 물과 들에서 자라는 마초에 의존했다는 것은 오늘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는 남자가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시에 보면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자는 누구든지 부양하게 하라...”(교성 75 : 2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주님께서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 : 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30년 교회가 회복된 이후에도 말일성도들은 검약과 노동을 회원들이 갖출 첫째 원칙으로 삼아 권장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나태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 : 42)

“...게으른 자는 주 앞에서 기억될 것임이니라”(교성 68 : 30)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 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 : 29)

남자는 지금 말씀드린 위의 세 성구 중 두 성구에 배치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루를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농장이나 가게나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일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며 그것은 고상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대로이며, 가족의 본분도 그대로이고, 일의 필요성도 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 장막, 우물. 이러한 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록해야 할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자녀인 저희를 도우셔서 이 단과 장막과 우물에서 영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㉞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므로써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제목을 붙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 이를 지키자”라고 붙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감에 찬 모임에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택함을 받은 분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보호하겠다고 주님과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나 개개인과 성약을 맺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택해 오신 주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경전에 보면 주님은 아담, 노아, 에녹, 멜기세덱, 아브라함, 그밖의 여러 사람과도 성약을 맺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나 야벳인이나 니파이인들과도 성약을 맺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축복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와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성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약이란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구속력이 있는 엄숙한 합의입니다. 성약이 효력과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약을 맺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는 쌍방이 함께 그 계약의 제반 조건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예언자와 백성들과 맺었던 성약이 새 성약에 의해 다시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성약을 제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

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교성 1:15-17)

이 계시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실제로 그 안에 권세와 협약과,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여타의 성약과 계명을 포함하는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성 132:5-7; 33:5,7 참조)

성약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좇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승영의 길을 열어 줍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고 또 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는 사자가 되게 하

였느니라.”(교성 45 : 9)

이제 여기에 우리와 성약에 마음을 돌릴 모든 사람을 위한 지침인 기가 그 충만한 권세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미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주민들아,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교성 1 : 34-35)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믿는 자를 침례줄 수 있게 수많은 선교사를 세상의 모든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왜 그와 성약을 맺게 하려는지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너희는 ...하라’ ‘하지 말찌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 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개인 생활에나 세상에 무엇이 평화와 성공을 가져다 주며 또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

하는지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면 이를 자녀에게 지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다만 금하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른 원리에 순종하여 평화와 성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계명과 율법과 성약을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명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약속하신 상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성 132 : 5)

교회의 모든 회원은 주님과 성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과 성약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며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쳐 주고 마음을 높게 가지게 하며 확신을 갖게 하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발적인 행동의 도구이며 우리가 노력을 집중하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침례와 회원으로서의 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너희는...하라’ ‘하지 말찌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인 안수를 받을 때 처음 성약을 맺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침례 후보자가 되는 조건과 침례 후 회원이 갖는 의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러한 요건과 기대되는 사랑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으로부터 침례를 받고자 원하며,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진실로 자기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성결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 사함 얻은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자에게는 모두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성 20 : 37)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아 들이는데 따르는 특별한 의무와 성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 앞에 증거하는 순종의 엄숙한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 성찬을 취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신권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의롭고 고상한 생활로 신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주어진 직분을 영화롭게 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사려와 예절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주님과 성약으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의 성약을 지키고 신권과 그에 따른 성약을 존중하며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생활을 해 나간다면 신권의 더 높은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성스러운 신전에 들어 갈 큰 특권을 얻게 되며, 때가 이르고 우리가 이미 맺은 성약에 충실하다면 의로운 사람들과 우리의 동반자, 자녀, 후손과 함께 첫째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 영원히 행복한 상태에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 “새롭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으로 알려진 신전의 반차로 들어 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위안과 확신과 기쁨을 주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 : 9)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과 성약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님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은 이러한 성약의 정신과 뜻과 의도와 목적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저버리면 그분의 축복과 그의 영의 은사와 시현에 따르는 우리는 영광과 힘과 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9권 [1906년 8월] 813페이지)

하나님은 결코 냉혹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갈6 : 7 참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모두 성스러운 곳에서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 즉 “가족 왕국”에서의 삶을 얻는데 필요한 원리인 율법을 지킬 것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와 비탄과 실망에서 구해 주시고, 끝까지 충실하여 참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된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모두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㉞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 ?

로버트 제이 매튜스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누가복음 17:1) 경전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우리로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족케 하거나 고통을 받게 하여도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예수께서는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누가복음 6:29)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실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고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1, 44, 46-47)라고 가르치셨다.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고로...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이같이 말해야 하나니, 나와 그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그대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시게 하자 하라.”(교리와 성약 64:8-9, 11)

“고난을 견디며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라, 온유로써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교리와 성약 31:9)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1-3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골로새서 3:12-13, 15)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딤후 2:3)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끝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교성 3:8; 27:17 참조)라고 가르치셨다. 불화살은 가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에게 향한 불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고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베드로전서 2:11-12, 15, 20-21, 23)

“베드로는 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했다. (베드로전서 3:8-9)

흔히 자기 자신의 언짢은 기분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합 왕은 특히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은 영적인 미성숙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나봇이 그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고 아합 왕은 기분이 상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왕상 21:4)하였다.

자만심이 강한 자는 더욱 더 바른 비판을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상하면 모반하기가 예사이다. 레이먼과 레뮤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우 니파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약점을 찔러 그들을 가르치는데 대해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그러한 감정은 불평, 불만 및 일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다. 부친 리하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저가 너희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탐하였다고 비난하였으나...

“너희는 저가 꾸밈없이 담백하게 이야기한다 하여 불평하였으며, 너희는 저가 날카롭게 이야기하며 너희에게 노여움을 품었다 하였으나, 보라 저의 날카로움은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인한 것이었으며, 너희가 노여움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진리였으니,…”(니파이이서1:25-26)

아합 왕도 진리보다 자기 자랑에 더욱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인간됨이 작음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예언자 미가야에 대해서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왕상22:8)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전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핍박을 받거나 바른 충고를 받을 때 도리어 화를 내는데 반해 겸손한 사람은 그 충고에 감사하고 핍박을 잘 참으며 주님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圖



예언자의 말씀

선교부장 엘 에드워드 브라운

최근에 십이사도 정원회 지역 대표이신 폴 시 앤두르스 장로가 한국을 다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인 이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셨으며, 우리의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메시지도 아울러 전해 주셨습니다. 앤두르스 장로와 같은 지역 대표를 부르셔서 지도자로부터 오는 새로운 가르침을 신속하게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6월에 앤두르스 장로는 솔트레이크시에서 있었던 특별한 대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이 자기 나라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큰 책임을 맡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앤두르스 장로는 수백만 아세아인이 교회로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십이사도 정원회 매튜 카울리 장로의 예언에 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이 일이 아세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세아인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더 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내에 각 와드나 지부에 두 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필요 합니다. 현재 156명의 선교사가 있으며 그중 18명이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68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부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들과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있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사로서 그를 대표하여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친애하는 한국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 미국인 선교사보다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룩한 큰 업적과 성공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이를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께서서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보다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감독이나 지부장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젊은이들을 찾아 선교사가 되도록 권고하십시오. 예언자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내외 소식

새로나온 책 소개

책 명	페이지	규격	가격	내 용
상호 부조회 공과 교안 1973-74	40페이지	5×7배판	200원	<p>1972년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가 발행한 책이다. 총 20과로 나뉘어 분류 되었고 1973년 3월 첫 모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p> <p>상호 부조회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교양, 경험 지식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가정의 사랑등 필요한 사항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집약한 책이다.</p>
기초 복음반	70페이지	5×7배판	200원	<p>교회의 회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교안 작성 요령으로 분석하여 엮어 놓았다. 내용은 모두 12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영원한 가족이 되는것, 교회내의 조직과 의식 및 목적, 예언자와 구세주에 관한 사항, 또 간증을 키움과 우리가 얻는 축복 등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분석, 정리하였다.</p>
꾀꼬리반 제 1 과정	330페이지	5×7배판	300원	<p>10세와 11세 소녀가 꾀꼬리반에 속하며 10세 소녀는 꾀꼬리반 제 1 과정에, 11세 소녀는 꾀꼬리반 제 2 과정에 속하게 된다.</p> <p>꾀꼬리반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녀로 하여금 영적인 면에서 지식을 키우게 하고, 집안일에 관한 기술을 습득케 하며 바람직한 성품을 쌓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p> <p>이 과정에는 신앙개조 13개 조항과 복음의 원리에 관한 공과, 꾀꼬리반에 관계있는 활동 그리고 수예 유의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p>
상향회 무용 기초과정 지침서	40페이지	5×7배판	200원	<p>무용 부분은 상향회 프로그램 중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며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을 얻게 하는 계획으로 적합하다.</p> <p>우리는 무용의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음에 간증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무용의 개념에서부터 스태프 및 무용 파티, 안무법과 무대 무용등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다.</p>

책 명	페이지	규격	가격	내 용
상향회 웅변 기초 과정 지도서	80페이지	5×7배판	200원	<p>상향회 웅변 기초 과정 지도서는 상향회 웅변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영구적인 교재로서 마련된 것이다.</p> <p>이 지도서에는 전체 프로그램 안내, 반 웅변 활동을 이끌기 위한 지시사항 및 워드 웅변 행사의 계획을 위한 지침이 실려있다.</p> <p>또 웅변 실습을 위한 지침, 말씀 준비, 기도 및 주제 준비 실습, 주제 봉독, 적절한 기도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p>
주일학교 유년부장 지도서	50페이지	5×7배판	200원	<p>본 지도서는 유년 주일학교의 조직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일학교 실무자는 본 지도서를 통하여 완전한 기능을 갖춘 유년 주일학교를 조직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조직된 유년 주일학교의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p> <p>이 지도서에는 조직을 비롯하여 관리 책임 주일날 할일, 교과 과정 책임 등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p>
상향회 연극 기초 과정 지도서		5×7배판	200원	<p>이 연극 기초 과정 지도서는 연극 교사가 각종 형태의 연극 활동을 계획,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각 연극의 특성과 배역상의 필수 요건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연극 교사는 이 지도서를 공부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p> <p>이 지도서에는 모든 형태의 연극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상호 향상회 역원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필요한 책이다.</p>
훈련 비행사반 제1과정	395페이지	5×7배판	300원	<p>이 책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으로써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p> <p>공과는 거의 대화체로 쓰여져 있으므로 6, 7세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p> <p>이 책은 어린 아이들을 복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p>
안내자반 제1과정	310페이지	5×7배판	300원	<p>구세주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또 성인들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가르침과 본보기를 보였다.</p> <p>이 안내자반 제1과정의 목적도 어린이들이 그들의 생활 태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p> <p>오늘날 어린이들은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과 또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모범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신앙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p> <p>그들은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지만 때로는 방향을 제시받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p>

책 명	페이지	규격	가격	내 용
집회소 도서실 기술 지도서	100페이지	5×7배판	300원	<p>집회소 도서실 기술 지도서는 집회소도서실 지침서를 보충하여 도서실 자료와 비품을 색인하고, 사용하고, 제작하며, 유지하는데 대한 상세한 지시 사항을 제공하며 도움이 되는 물품들의 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p> <p>이 지도서는 특히 와드 및 지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도서실에서 봉사하는 모든 도서실 요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소 도서실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p> <p>내용은 첫째 교회 표제 분류표, 둘째 교육 자료 및 비품 세째 용도품 목록, 네째 책, 지침서, 지도서, 간행물 및 목록표로 나뉘어져 있다.</p>
교회 음악 지침서	40페이지	5×7판	200원	<p>이 지침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음악 조직, 정책 그리고 절차에 관한 기본 유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지침서는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과 신권회의 음악 지도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p> <p>교회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음악 책임자들은 자신의 부름에 관한 지도서 뿐만 아니라 이 지침서의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p> <p>지휘자, 반주자, 어린이 음악, 청소년 음악, 합창등을 위한 지도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p>
젊은이의 힘을 위하여	16페이지	4×6판	40원	<p>청남 청년 상향회 본부 역원은 말일성도의 표준을 정하여 의상, 예법, 데이트, 무용 및 순결한 삶이라는 부제목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젊은이의 힘을 위하여”라는 책자를 마련하였다.</p> <p>우리는 비단 교회의 젊은이 뿐만이 아니라 말일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책에서 말하는 모든 표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p> <p>모든 신권 지도자들은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알아야하며 또한 젊은이들과 부모님들께 이책의 내용을 알려 주도록 힘써야 하겠다.</p> <p>회원들은 이 소책자에 모든 회원이 따라야 할 표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 와드와 지부의 젊은이들이 모두 이 책을 갖는다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보다 큰 목표와 표준을 세우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p>
나부터 경건해야죠	50페이지	5×7배판	240원	<p>초등협회 경건 프로그램으로 초등협회 회원들이 어떻게하면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매주매주 배울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p> <p>경건한 집회 분위기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 집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p>

